

도시철도 2단계·호남고속도로 확장... '교통대란' 대책 마련

광주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현장회의...공사 현장 특별 점검

광주시가 북구·광산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중첩(동시) 진행에 따른 '교통대란' 최소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구간 주변으로 북구와 광산구 주민 70만~8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도심 대표 혼잡구간인 용봉 IC 구간, 전남대-일곡지구, 광산 IC 구간, 첨단지구, 수완지구 등이 포함돼 공사 기간 교통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14일 북구 오치초교 주변에서 '교통혼잡대응추진단 현장회의'를 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혼잡 해소방안,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을 논의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오치초교 주변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회, 자치구, 교통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교통혼잡대응추진단'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회의에서는 올해 초부터 본격화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 대규모 공사현장 2곳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호남고속도로가 중첩되는 광산IC 부근과 오치초교 주변의 경우 본 공사 진행시 상당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 관련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교통혼잡대응추진단은 앞으로 공사 일정과 교통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공사 진행사항을 시민에게 공유하는 한편 자치구는 공사 구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공사 일정상 2개의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는 진행되지는 않아 당초 우려와 다르게 대규모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광주시와 교통관계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교통혼잡대응추진단은 지난해 말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결정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총괄대응단'과 실무적인 검토와 지원기능을 수행할 '실무추진단'으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지금까지 총괄대응단 회의 2회, 실무추진단 회의 4회, 공사 구간 15개 동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초부터 도시철도 2단계 구간 8개 공구(7~14공구) 중 8공구에서 굴착 공사를 시작했으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다시 지연되고 있다.

2구간 8공구는 오치초교에서 삼각그린터운아파트까지 총 1.8km로, 굴착과 함께 복공판(공사 구간 위로 차량 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철판) 설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다.

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2단계 2구간에 대한 굴착과 복공판 설치를 완료하고,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악의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올 4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연내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호남선은 현재 전국 고속도로 중 정체 시간이 가장 긴 구간으로, 주말 기준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은 월 84.8시간씩(평일 18일, 주말 8일) 정체되고 있다.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5년 총사업비 분담 협약(국비 50%, 시비 50%)을 체결한 뒤 2022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급증한 공사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예초 올 4월 착공을 계획했던 광주시는 늦어도 2025년 초부터는 공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급증한 공사비 등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호남고속도로가 국가 간선 도로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사업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시급하며, 공사 기간 교통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황금들녘 나락 먹는 참새떼 14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의 추수가 덜 끝난 논에서 참새떼들이 나락 낱알을 먹기 위해 날아다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영록 지사, 헨릭 베스타스 회장과 터빈공장 조속 착공 논의

해상풍력 협력 의지 재확인...물동량 확보 등 함께 나서기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도청에서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과 터빈공장을 2년 내에 착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착공이 연기된데 대한 대책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전남도는 14일 "김영록 지사와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이 만나 전남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신안 집적화단지 조기 지정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정부에 정책 건의에 나서고, 베스타스는 국내 기업 발굴·육성, 연구 개발(R&D), 인력 양성 등 협력사업 발굴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헨릭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남도가 해상풍력 협

력 파트너로서 변함이 없다"며 "전남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돼 물동량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베스타스가 목포신항 부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장 설립이 무산되는 게 아냐는 전남도민의 우려가 크다. 전남도는 베스타스가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상호 협력사업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 보급·확산에 차질 없도록 베스타스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면담 후 해상풍력 터빈이 그려진 전통부채에 김영록 지사와 헨릭 회장이 서명하고 교환하면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는 세계시장 위기

속에서도 해상풍력 보급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국회 여야 모두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재생에너지 4법인 국가 기간 전력량 할당 특별법, 분산에너지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개정,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상풍력 시장 확산과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3.7GW의 신안 집적화단지가 조속히 지정되도록 추진하며, 도내 해상풍력 사업 중 1GW 규모의 신안 해상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에 터빈 입찰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으뜸콜' 선포...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콜서비스 새이름 선포식

전남도가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콜서비스의 새 이름을 '전남 으뜸콜'로 정했다.

전남도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14일 남약스카이웨딩홀에서 '전남 으뜸콜' 선포식을 열었다.

행사는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우수 종사자와 '전남 으뜸콜' 새이름 공모 수상자에게 도시사 표창 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한 해 성과 보고와 주요 유공자 표창, 새이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 으뜸콜'은 지난 8월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총 2646건의 응모작 중 선정위원회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새 이름은 '생명의 땅 으뜸 전남'과 연관성이 있고, 교통약자에게 친근함과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해결하고 OK 전남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위해 무안군민 설득 적극 나서야"

산업건설위원들 시의회 행감서 단체장 대화 등 촉구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간 대화와 소음 보상비 현실화 등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수훈(민주시구1) 의원은 14일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와 무안군의 관계가 남북 관계와 비슷하다고 본다"며 "지도자끼리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고 마음을 얻어내는 게 필요하다. DJ 정부의 '햇볕정책'처럼 광주시에서 끊임없이 무안군에 노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무안공항 이용객은 100만명에 달했지만 무안지역 내 총생산(GRDP)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무안군민 입장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삶에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광주시가 무안군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기(민주·광산구5) 의원은 군 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력과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현재 월 최대 6만원의 소음 보상비는 현실에 맞지 않다. 특히 주거지 중심 대상 범위를 일과 시간의 실질적인 피해 대상인 직장·학교 등 생활인구까지 확대하는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2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국방부의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용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군 공항 소음 보상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보상액을 월 최대 1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음 대책 지역 경제 기준 변경으로 보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